

II. 이차역마진과 전망

1. 금리환경

가. 금리변화추이

금리는 국제금리의 상승기조 등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불황 국면이 다소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2001년 이후 저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2001년 1차 저금리정책으로 콜금리 목표를 4차례 인하하였으며 2003 ~ 4년에도 2차 저금리정책을 시행하여 콜금리 목표를 4차례 인하하였다. 그래서 2000년 10월 5.25%였던 콜금리는 2004년 11월 3.25%까지 하락하였다.

1차 저금리정책기인 2001년에는 3.8%로 하락했던 실질경제성장률이 2002년 7.0%로 상승하는 등 금리인하가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2차 저금리정책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003년(3.1%)에 이어 2004년(4.6%)에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등 금리인하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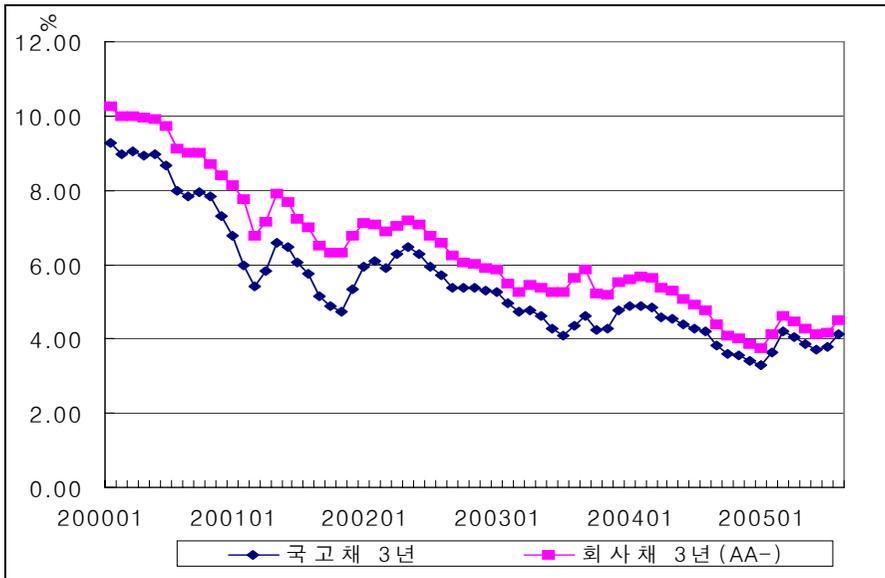
<표 II-1> 콜금리변경시점과 콜금리

변경시점	콜금리 변경(% , %p)
2000년 2월, 10월	4.75 → 5.25 (+0.50)
2001년 2월, 7월, 8월, 9월	5.25 → 4.00 (-1.25)
2002년 5월	4.00 → 4.25 (+0.25)
2003년 5월, 7월	4.25 → 3.75 (-0.50)
2004년 8월, 11월	3.75 → 3.25 (-0.50)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리 인상추세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부양 여부에 달려있다. 경기부양 조짐이 확실해져 우리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 될 것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리게 되면 미국 등 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국내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경우에도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I-1>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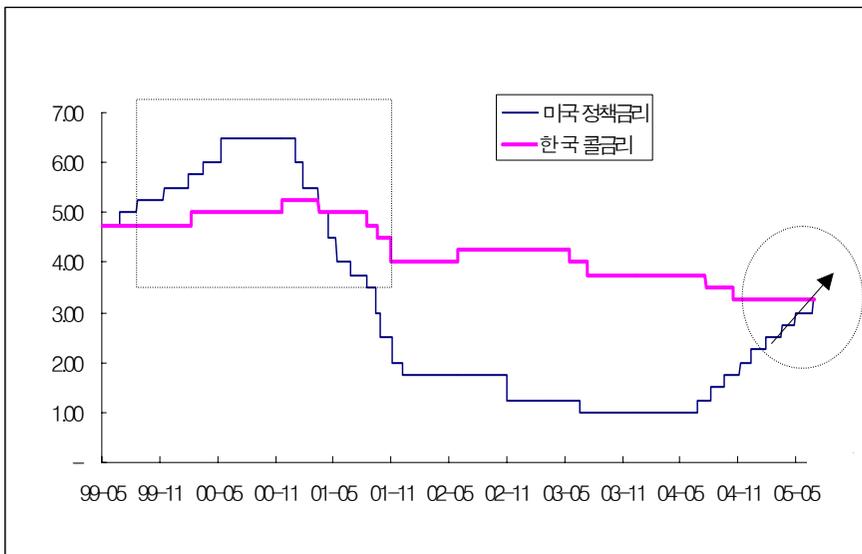
한편 2005년 1월 들어 빠르게 반등하던 장기금리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에는 3%대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국고채(3년)금리는 2004년 12월말 3.28%에서 2005년 2월 11일에는 4.46%까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반등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5월 26일에는 3.62%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다시 금리는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8월 19일에는

4.23%까지 올라갔다. 통화당국은 국제금리의 상승과 국내경기부진이라는 상반된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금리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이후 콜금리 운용목표를 3.25%에서 동결을 하고 있다.

나. 향후 금리 전망

미국 FOMC는 '04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자 2004년 6월부터 연방기금금리를 상향 조정하였다. 금년 6월 30일 까지 연방기금금리를 25bp씩 9차례 인상하여 3.25%로 조정하였으며 이번 8월 9일에도 점진적 정책금리 인상기조에 따라 25bp를 인상하여 3.25%에서 3.50%가 되었다. 이번 25bp 인상으로 우리 콜금리 목표 3.25% 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FOMC는 금년 말까지 3차례(9월 20일, 11월 1일, 12월 13일) 예정되어 있으며, 연방기금금리를 4.00 ~ 4.25%까지 상승시킬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림 11-2> 한·미 정책금리 차이



한·미간 정책금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제여건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FOMC의 연방기금금리의 인상추세는 기본적으로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기, 물가 등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금리정책을 활용하여 저금리 기조를 탈피하기도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도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고금리 상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현재 금리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현 경제사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2. 보험산업 이차 역마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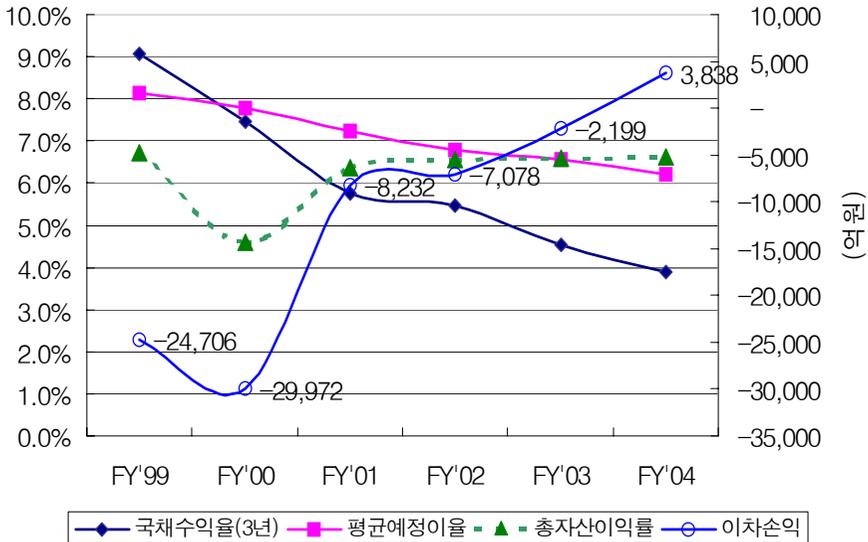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고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급격하게 높아진 시중금리가 빠르게 안정화 되었으나,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 및 경기침체로 자금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4% 대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로서도 자산운용의 한계를 보험상품에 반영하여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평균 보장금리를 낮추었으나 과거의 고금리로 계약한 기존계약 때문에 자산운용의 환경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채 수익률은 6.16%감소하였으나 반면 평균예정이율은 1.92%감소하는 데 그쳤다.

<표 II-2> 평균예정이율과 총자산이익률

구분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국고채수익율(3년)	9.06%	7.47%	5.77%	5.46%	4.53%	3.90%
평균예정이율	8.14%	7.78%	7.23%	6.77%	6.55%	6.22%
총자산이익률	6.71%	4.59%	6.36%	6.56%	6.59%	6.61%
이차손익 (억원)	△24,706	△29,972	△8,232	△7,078	△2,199	3,838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II-3> 평균예정이율과 총자산이익률



그런데 저금리 현상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이익률은 6%대를 상회하고 있고, 이차역마진 규모도 2001년 이래 점점 감소하여 FY'04년에는 이차이익을 실현하는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 구입한 고금리 채권(대개 3년, 5년 만기)을 시가 평가함에 따른, 즉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시가로 평가할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기인한 평가이익이나 매각이익이 실현됨으로써 총자산 이익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이차 역마진 원인 분석

가. 상품구조

보장이율의 형태를 보면 금리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변동형 상품에 비해 크다.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을 보면 2004년 12월 현재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금리확정형 상품은 전체책임준비금의 59.6%를 점유하고 있고 보장하는 평균 예정이율은 7.56%이다. 2004년 총자산이익율이 6.61%인 것과 비교하면 0.95%의 금리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금리변동형 상품은 리스크가 없다고 가정하면 전체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0.56%의 금리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잔존기간별로 살펴볼 때 전체 보험료적립금 중 예정이율 7.5~8.0%에 해당하는 보험료적립금 비중은 78.3%로 가장 높으며 잔존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계약이 67.8%를 차지하고 있다. 예정이율 7.5~8.0%에 해당하면서 20년 이상인 계약은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금리기조가 지속된다면 보험회사에게는 금리리스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으로 최근 몇 년간 보험회사들은 금리리스크가 큰 저축성상품을 줄이고 보장성상품 판매 비중을 높여왔지만, 새로운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를 통해 팔리는 상품은 대부분 저축성 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방카슈랑스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회사로서는 더 큰 역마진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

나. 이차역마진을 유발시키는 경쟁 환경

앞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해 온 방카슈랑스제도

의 시행에 따라 은행 등에서 판매한 상품의 대부분은 일시납 저축성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방카슈랑스의 대표채널인 은행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높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로서는 방카슈랑스로 판매된 계약에 대해 이차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한편, 방카슈랑스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차익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차손 발생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비차익의 규모가 축소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은행계 및 일부 외자계 보험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은행계 및 외자계보험사들은 은행과의 적극적인 제휴아래 타 보험사에 비해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하면서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의 배경은 기존사들에 비해 이들 보험회사들이 보유계약의 고금리상품판매비중이 낮고 자본구조가 견실하여 가격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사들도 예정이율을 쉽게 인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계약에서도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상품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계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기준으로 8%에 불과하였으나 시행 후 2004년에는 16.5%까지 확대되었다. 성장의 동인은 종신보험의 시장성장과 더불어 방카슈랑스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판매덕분이다. 외국보험사는 2004년에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하여 판매된 보험계약 중에서 56.3%(초회보험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국내보험사들이 고금리상품판매 때문에 안고 있는 이차역마진 부담이 외국계보험사에도 현실화될 수 있다. 국내보험사들은 과거 주력상품이던 확정형 종신보험상품과 방카슈랑스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한 일시납 저축성 상품으로 인해 이차역마진 부담을 크게 안고 있다.

한편, 유사보험기관들은 민영 생보사들보다 저렴한 가격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소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으로 인한 브랜드 파워까지 겹쳐서 보험시장을 급격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시중 금리가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경우 유사보험과의 경쟁에서 생명보험사들이 뒤처지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더 심각한 이차역마진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이차손익의 변화

이차손익은 과거 IMF 이전 '94 ~ '95년에 약 3000 ~ 4000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으나 곧 약 2000억 원대의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식과 고금리 상품의 쇠퇴 등으로 인해 1997년에 약 1조 천억 원의 이차손실을 기록하였고 2000년에 2조 7천억 원의 이차손을 기록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적자의 주요인이 되었다. 그 후 점점 개선되어 2004년에는 약 3천 8백억 원의 이차이익을 기록하였다.

저금리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이차익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6%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사의 경우 7%대를 기록하여 부담 금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포트폴리오 중 유가증권 비중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높은 자산운용수익률은 상당부분 과거에 매입한 유가증권 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른 즉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시가로 평가할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이 평균적으로 3.5~4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2002년 이후 평가·처분된 유가증권은 1999~2001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0년에 발행된 주요 채권의 금리는 8%를 상회하였으나, 200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4년 들어서 4%대로 급격히 낮아졌고 2005년 6월 기준으로 4% 이하 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5

년 주요 채권의 금리수준은 2000년 대비 50%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당시보다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익 및 매각익이 크게 높아졌고, 이로 인해 자산운용수익률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일부 생보사의 경우 전체 자산운용이익 중 20~30% 정도가 유가증권 평가익 및 매각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자산운용 관련 이익 중 평가익 및 매각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2에는 12.4%를 차지하였으나, FY2003에는 14.2%로 높아졌고 2004. 9월에는 13.4%로 낮아졌으며, 향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3> 운용자산수익률과 국채수익률

(단위 : %)

	운용자산수익률	국채수익률	차이
1997년	11.7	12.26	△0.56
1998년	12.7	13.00	△0.30
1999년	12.0	7.69	4.31
2000년	8.9	8.30	0.60
2001년	8.9	5.68	3.22
2002년	8.9	5.78	3.12
2003년	8.7	4.55	4.15

자료 : 금융감독원

따라서 이차손익이 개선된 이유는 고금리의 우량한 채권들을 매도함으로써 운용자산수익률이 국채수익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이차역마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고 지급여력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량한 채권들을 매도함으로써 이차손익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의 우량채권이 최근의 저금리의 채권으로 완전 교체될 경우 심각한 이차역마진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생보사의 경우 운용자산수익률과 기준금리의 차이

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산을 안정되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리가 급등과 급락을 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표 II-4> 미국 생보사의 운용자산수익률과 국채수익률

(단위 : %)

	운용자산수익률	국채수익률	차이
1997년	7.67	5.73	1.94
1998년	7.49	4.65	2.84
1999년	7.40	6.44	0.96
2000년	7.51	5.11	2.40
2001년	7.11	5.03	2.08

주 : 미국 30대 생보사 운용자산수익률 가중평균(A.M. Best 2002)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작년 2004년에 8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차역마진에서 약 3천 8백억 원의 이차이익으로 전환된 바, 가장 큰 이유는 파생상품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표 II-5> 파생상품 평가이익

(단위 : 억원, %)

구분	FY'04	FY'03	증감	
			증감액	증감률
생보사계	13,533	4,886	8,646	176.9
대한	189	1	188	34,202.3
삼성	7,167	2,934	4,234	144.3
교보	3,972	1,586	2,386	150.4

자료 : 금융감독원

파생상품평가이익의 증가원인은 국내외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액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주요 파생상품인 통화스왑의 경우 원화금리가 하락할 경우 평가액은 증가하는 반면 달러금리는 상승할 경우 평가액은 증가한다.

$$\text{평가액} = \frac{\text{원화 현금흐름}}{(1 + \text{원화 금리})^{\text{기간}}} - \frac{\text{달러 현금흐름}}{(1 + \text{달러 금리})^{\text{기간}}}$$

즉,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인하여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FY'04의 국내외 금리를 살펴보면 미국 금리의 상승폭 및 한국 금리의 하락폭이 전년도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1-6> 환율 및 국내외 금리변동 내역

	'04.4.1~'05.3.31	'03.4.1~'04.3.31
미국 국채(3년)	2.14%p ↑	0.08%p ↑
한국 국고채(3년)	0.59%p ↓	0.12%p ↑
환율	131.1원 ↓	108.0원 ↓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헷지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므로 동 파생상품은 헷지회계1(현금흐름)로 처리하고 있다2). 그러나 헷지회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frac{\text{파생상품 평가액}}{\text{해외자산 가치변동액}}$ 이 80 ~ 125% 범위에서 움직여야 하나 최근 국내외 금리변동에 따라

- 1) 해외자산의 가치변동액 및 파생상품 평가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하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 2)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구 분	해외채권	통화스왑	영 향
환율변동	당기손익(P/L)	당기손익(P/L)	당기손익을 서로 상쇄
금리변동	자본조정(B/S)	당기손익(P/L)	자본총액을 서로 상쇄

동 범위를 벗어나 일부 파생상품 평가액이 당기손익으로 계상이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차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파생상품은 계약기간 중 환매가 불가능하고 평가손익이 만기에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를 이익으로 보기는 사실상 힘들다.

4. 당기 손익 전망

가. 당기손익의 변화

생명보험회사들은 90년대에 계속적으로 당기손실을 보다가 IMF 금융위기 때에는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큰 손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차역마진 속에서도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당기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표 II-7> 생명보험회사 당기 손익

(단위 :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당기손익	- 608,531	1,726,050	2,829,773	1,587,440	2,074,499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특성상 현재 발생하는 이익이 제조업과 같이 완전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당기 이익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건전한 성장을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적으로 당기손익의 원천이 되는 사차, 이차, 비차 손익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의 이익이 계속적으로 구현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의 이차역마진을 겪고 있지만 2001년 이

후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생명보험사들의 구조조정 노력과 생산성 향상 노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독당국의 정책³⁾에 의한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이차역마진을 보충하는 사차익과 비차익을 완전한 이익으로 볼 수도 없으며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

보험상품의 정확한 가치는 미래 가치의 평가를 통해서만 측정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발생하는 당기이익을 이익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이 금융정책이 세운다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이익의 원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 기타 이익 분석

1) 위험률차익

2000년 이후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FY2000~2003에는 양호한 위험률차익을 기록하여 이차부문의 손실을 보전하고, 당기순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생존담보의 비중이 증대하고, 이 분야에서 위험률차익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FY2002 이후 전체 위험률차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위험보험료 중 생존을 담보하는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FY2000의 47.0%에서 FY2003에는 51.7%로 높아졌다. 그러나 생존담보의 위험률차익률은 FY2000의 8.0%에서 FY2003에는 -1.4%로 이익에서 손실로 돌아섰다. 반면 사망을 담보하는 위험보험료의 비중은 FY2000의 53.0%에서 FY2003에는 48.3%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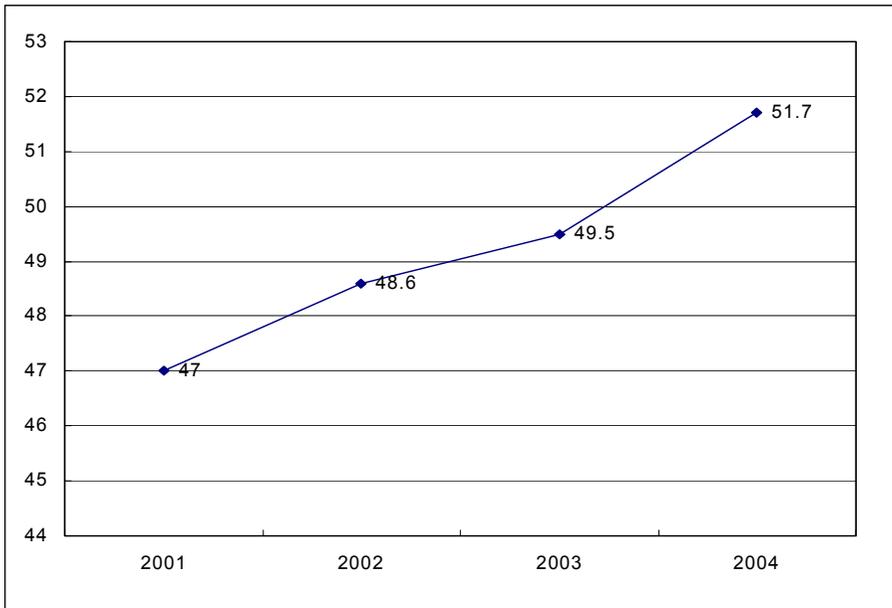
특히 생존담보 비중이 높은 CI보험의 판매 증가 및 입원, 상해, 수술 보장 등 건강 관련 특약부가율의 증가로 인해 생존을 담보로 하는 보험

3) 종신보험 예외규정 적용

의 위험률 차익률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Y2004 결산 시점부터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의 적립으로 인해 위험률차익 규모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사용을 목적으로 제5회 경험생명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의 사망률도 제4회 경험생명표 대비 어느 정도의 하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4> 생존담보 위험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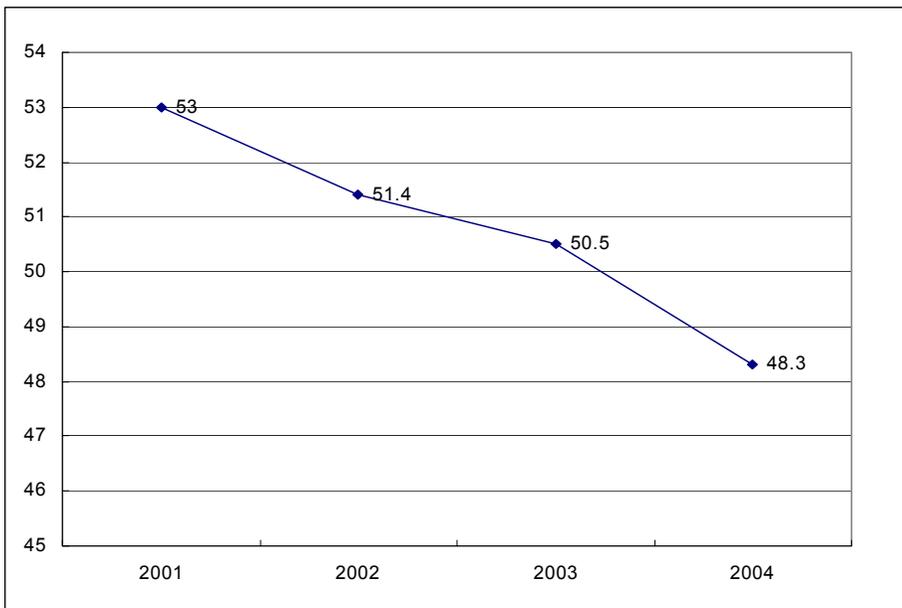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서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은 꾸준히 의 위험률차 이익을 보여 왔으며, 이는 전체 위험률차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제5회 경험생명표를 개정하여 예정사망률을 낮춘다면 향후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신계약에 대해서는 위험률차 손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입원율과 같은 생존위험율은 최근 발생율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존을 담보로 하는 보험의 위험률차 손익률은 신계약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면 FY2003의 -1.4%에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5회 경험생명표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망담보의 위험률차 이익률은 감소하고 생존담보의 위험률차 손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5> 사망담보 위험보험료 비중



자료 : 보험개발원

2003년 위험보험료 규모를 보면 사망담보와 생존담보가 비슷한 규모이다. 반면 위험율차 손익은 사망담보가 이익이 발생하여 위험률 하락요인이 있으며 생존담보는 적자가 발생하여 위험률 증가요인이 있다. 만약 요율 조정 시 사망률의 하락폭이 생존율의 상승폭보다 크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신계약부분에서 위험율차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2) 비차익

IMF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이차역마진을 겪은 생명보험사들은 FY2001 이후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최근 4년간의 이익 증가원인은 그동안 진행된 강력한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또한 상품구조조정을 통한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확대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저축성 위주로 판매하던 상품구조는 금리리스크가 적은 보장성 보험으로 상품구조가 바뀌었다. 2001년부터 종신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CI 보험을 개발 판매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장의 주력상품은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되었다.

<표 II-8> 초회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FY'98	FY'99	FY'00	FY'01	FY'02	FY'03
보장성	2,491	2,630	4,004	3,685	5,316	4,385
(종신)	(16)	(48)	(1,051)	(2,381)	(4,490)	(2,777)
저축성	36,900	15,304	29,907	17,179	9,693	5,843

자료 : A 생명보험사

2001년부터 보험회사들이 큰 폭의 비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보장성 보험 특히 종신보험에 기인한 것이다. 감독당국의 종신보험 판매권유와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판매확대로 인해서 종신보험의 사업비차익⁴⁾이 급격히 증가했다. 종신보험은 판매활성화를 위해 신

4) 현행 법규상 표준 신계약비는 개별 보험종목의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에 의거 결정되는 연납 순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다.

$$\text{표준 신계약비} = \text{연납 순보험료의 } 5\% \times \text{보험기간} + \text{보장가입금액} \times 1\%$$

계약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비중이 높아 보험회사로서는 사업비차익을 실현할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신보험에 대한 예외규정은 2005년 4월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차익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및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로 인해 비차익이 발생하였다. 생명보험업계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생존차원에서 임직원·설계사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11-9> 생명보험업계 조직·인력 추이

(단위 : 개, 명)

	FY2000 4/4	FY2004 4/4	FY2000 4/4 → FY2004 4/4
설계사(명)	213,546	136,947	△ 76,599
임직원(명)	32,966	25,412	△ 7,554

주 : 보험사 회출 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 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2004년 여름호

4) 향후 비차·위험률차익 전망

지금까지 이차역마진의 상황에서도 당기손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비차익과 사차익의 실현과 이차역마진의 규모의 감소에 있었다. 그

여기서 보험기간은 20년이고 연납 순보험료 산출시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20년 중 작은 값으로 하였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예외조항을 두어 보험기간을 25년으로 하였으며 보험료 납입기간도 도입초기의 판매촉진과 중도해지 억제를 위해 10년으로 설정하였다. 표준 신계약비의 산식은 보험기간이 늘어나면 표준 신계약비가 늘어나고 납입기간이 줄어들면 표준 신계약비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신계약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의해서 사업비차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러나 앞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비차익의 규모는 감소될 전망이다. 2005년부터 신계약비 이연방식제도를 실제 지출한 신계약비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초기인 1, 2차년에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커서 사업비차익이 과대 계상되던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과기간별 사업비차익의 구조가 달라질 것이고 신계약비 이연·상각 관행에 따른 사업비차익 과대계상 효과가 사라져 사업비차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종신보험의 표준 신계약비 설정 시에 표준 신계약비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여타 보험종목에 비해 과다한 신계약비를 축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토록 함에 따라 사업비차익의 축소가 예상되어진다.

그리고 IBNR의 적립과 제5회 경험생명표의 2006년 시행으로 인해서 위험률차익도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건강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건강담보 부문에서 손실을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종신보험이 이제 신계약 때 발생하는 선택효과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신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택효과로 인한 위험률차익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차역마진을 보전하던 비차익과 위험률차익의 감소로 이차역마진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